

일반인, 딥시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올해 음력설 기간에 출시된 딥시크(deepseek)가 한때 돌풍을 몰아오면서 7일 동안에 사용자수가 역명을 돌파했다. 딥시크는 강력한 언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한 답을 준다. 보통 사람들이 딥시크를 잘 활용하면 생활과 학습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학습의 좋은 도구

문과 작성에서 마치 큰 산을 마추는 것처럼 느껴질 때 딥시크는 유능한 조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정확하게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의 최전선에 바짝 다가갈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엄밀한 대강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풍부한 학습 자료와 다원적인 연구 사고를 제공할 수 있다.

학과 난제 공략에서 복잡한 수학기초식 유도, 난해한 물리원리, 역사사건의 심도 있는 해석... 딥시크는 모두 알기 쉬운 해석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학습의 병목 현상을 돌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어 배우는 과정에서 딥시크는 원어민 교사와 같다. 발음을 정확하게 바로잡고 문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장감이 넘치는 대화 연습 장면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고품질의 번역 임무를 완수해 전방위적으로 당신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개인의 학습목표, 시간배치와 학습 진도에 근거하여 딥시크는 맞춤형 개성과 학습계획을 제정하고 학습시간을 합리하게 분배하며 각 단계의 학습 임무를 명확히 하여 학습을 더욱 능률적이고 더욱 질서있게 할 수 있다.

생활계획 도구

여행을 준비할 때 딥시크는 당신의 여행 목적지, 시간과 예산에 근거하여 상세한 일정을 세심하게 계획할 수 있으며 인기 관광지 추천, 관광지의 미식 공략, 편안한 숙박 예약 및 편리한 교통 지침을 포함하여 당신의 여행을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다.

집에서 실내 환경을 개조하고 싶다면 딥시크는 풍부한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공간배치 계획, 색채배합 건의부터 가구 선택 지침까지 전문적이고 친절한 건의를 할 수 있다. 딥시크는 당신이 꿈꾸던 따뜻한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신의 몸 상태, 헬스 목표와 시간 안배에 근거하여 적합한 운동종목, 운동 강도와 빈도를 포함한 전속 헬스계획을 제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과학적인 음식 배합 건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이를 어떻게 동반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딥시크는 창의적인 수공예작, 기묘한 과학실험, 야외탐험 등 일련의 흥미진진한 친자활동을 기획하여 친

자관계를 증진하고 아이의 즐거운 성장을 동반할 수 있다.

직장에서 좋은 파트너

직장에서 비즈니스 관련 메일 작성은 일상적이다. 딥시크는 서로 다른 메일 주제와 대상에 따라 규범적이고 전문적인 메일 템플릿과 내용 건의를 제공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뛰어난 직업 소양을 보여줄 수 있다. 프로젝트를 담당할 때 딥시크는 전문적인 프로젝트 기획 사고 방식과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당신이 깊이있는 시장 분석을 하고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며 상세한 집행 절차를 계획하여 프로젝트 기획의 질과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복잡한 데이터에 직면하여 딥시크는 데이터 뒤의 깊은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딥시크는 간결하고 명쾌한 언어로 데이터 결과를 전명하고 실행 가능한 건의를 제기하여 결핵에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수 있다. 회사에서 업무회의가 끝난 후 딥시크는 회의록을 재빨리 정리하고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으며 토론 내용, 결핵 사항과 대기 임무를 뚜렷이 나타낼 수 있어 당신이 사업을 회고하고 일을 추진해나가는 데 편리하다.

취미와 애호의 참모

소셜 창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딥시크는 영감의 보물고라고 할 수 있다. 참신한 이야기 아이디어, 독특한 인물 설정, 변화무쌍한 줄거리와 전개를 제공하여 창작 구상을 열어주고 소설 창작의 길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촬영을 배우는 과정에서 딥시크는 각종 촬영 구도 방법과 촬영 기교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촬영 장면과 주제에 따라 목적성 있는 촬영 건의를 할 수 있어 촬영 수준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애호가들을 협조하여 음악 창작을 진행할 수 있고 가사 창작 영감, 멜로디 방향 건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간단한 음악을 생성하여 당신의 음악 창작 잠재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싶을 때 딥시크는 당신의 입맛 선호, 식재료 준비 상황과 요리 난도 요구에 따라 풍부하고 다양한 레시피를 추천할 수 있으며 요리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쉽게 요리사로 변신할 수 있다.

마케팅 아이디어 조력기

소셜미디어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딥시크는 매우 매력적인 문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 모멘트 동태, 블로그 트윗, 소홍수 필기를 막론하고 부동한 플랫폼의 풍격과 시청자의 특성에 따라 눈길을 끄는 내용을 창작하여 팬들의 커뮤니티케이션과 주목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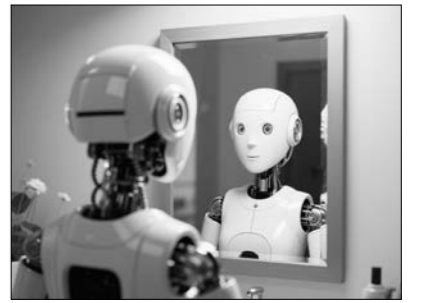
광고기획을 할 때 딥시크는 창의적인 영감과 광고 문안 작성 건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품의 특징, 목표 시청자와 전파 경로 등 면에서 출발하여 창의성이 넘치고 영향력이 강한 광고 방안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딥시크는 제품 묘사를 최적화하고 제품 우세와 관건을 두드러지게 하며 더욱 감화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딥시크는 행사기획방안을 제정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 행사 주제, 절차 안배, 홍보 등 내용을 포함하여 행사가 다채롭고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딥시크의 응용 장면은 매우 광범위한바 상술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딥시크에 대한 깊은 탐색과 사용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개성화된 응용 방식을 발굴하여 생활과 업무에서 없어서는 안될 유능한 조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종합

거울을 본 인공지능 로봇의 반응



인공지능 로봇이 거울을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답안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인간이 거울을 보고 춤을 연습하는 것처럼 로봇도 거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읽고 조정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로봇이 거울 보기를 통해 자신의 몸 에 관한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 연구진은 이 놀라운 연구를 《자연·기계지능》저널에 발표해 그 과정을 소개했다.

거대한 거울 앞에 로봇이 있다. 하지만 이 거울은 일반적인 거울이 아니라 2D 카메라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세계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성된 스마트 거울이다.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카메라는 모든 동작을 기록하고 그 정보를 로봇의 심층 신경망에 전달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처음에 로봇은 단순히 자신을 관찰했을 뿐으로 마치 한 아이가 거울 속의 자신을 처음 본 것처럼 호기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가 점차 쌓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로봇이 자신의 신체 구조와 운동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행동 경로를 계획하는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팔이 구부러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조정하고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일반 2D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상을 리움해 자신의 운동에 대한 자아인식을 쌓는 데 있다. 전통적으로 로봇은 가상환경에서 이동을 배워야 했지만 지금은 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의 일반

2D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체의 3D 모양을 자기절로 모델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능력은 로봇으로 하여금 더 독립적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인간 프로그래밍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이 기술이 로봇에게 새로운 적응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정용 청소 로봇이 실수로 가구에 부딪쳐 팔이 구부러지면 작업을 중단하거나 수리할 필요가 없이 대신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이동 방식을 조정하며 청소 작업을 계속한다. 이러한 자기 회복 능력은 로봇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제조, 의료 및 기타 분야에 전례없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흥미로운 연구는 로봇과 인간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시각학과 로봇 기술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로봇은 자아관찰을 통해 동작을 보완하고 자신의 공간운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더는 간단한 도구가 아니라 자아학습 능력을 가진 동반자로서 더욱 지체롭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밀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로봇이 거울을 봤을 때 일어나는 신기한 상황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는 미래 세상을 상상해볼 수 있다.

/ 과기넷

어릴 때 기억, 모두 어디 갔을까?

당신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분명히 어렸을 때 매일 엄마에게 안겨 그림책을 읽었는데 왜 지금은 당시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왜 3살전의 기억은 지우개 지운 것처럼 사라졌을까?

사람들은 이것이 '영아기 기억상실증' 현상으로 뇌의 '기억창고'인 해마가 영아기에 아직 완전히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예일대학교 과학자들은 이 일은 그다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이 사진들을 알아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었다. 이는 아기가 사실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기억 방식이 성인과 다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생후 4개월에서 2살 되는 아기들에게 낯선 얼굴, 새 장난감 또는 새 방과 같은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었다. 잠시 후 그들은 이 아기들에게 전에 보았던 사진과 새로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마치 유아 버전 '틀린 곳 찾기'와 같았다. 그 결과 아기들은 이전에 본 사진들을 더욱 오래동안 주시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 사진들을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아기가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왜 사람들은 어른이 된 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두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가지는 이러한 기억이 장기기억으로 전환되지 않아 빠르게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러한 기억들이 사실 뇌에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마치 당신이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았을 때 그것이 어느 층에 있는지를 까먹어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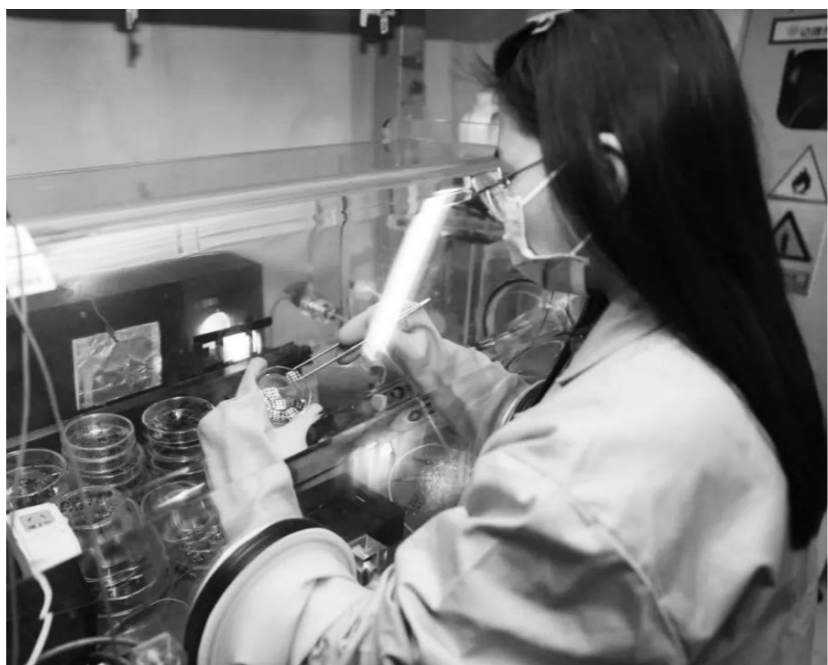
과학자들은 아직도 아기 기억의 신비에 대해 더 많이 탐구하려 한다. 그들은 왜 어떤 기억은 사라지고 어떤 기억은 보존되는지 알고 싶어하는데 이는 그들이 이 사진들을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더 흥미로운 점은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이런 사진들을 처음 봤을 때 해마가 특히 활동적이면 그들이

/ 과기넷

중국, 태양에너지전지 새 기술 개발

'미래의 빛'으로 불리는 칼시움티타늄 태양에너지전지는 전통적인 규소 태양에너지전지처럼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처럼 얇고 구부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옷이나 창문에 붙여 사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품의 불안정성은 목전 산업화 발전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되고 있다.



일전 화동리공대학 재료학원 청정에너지재료및부품팀 후우, 양상 등 교수들은 《과학》저널에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신형 태양광 불안정성의 관련 매커니즘인 광기계유도분해효과를 밝히고 그래핀-폴리머 기체가 칼시움티타늄광재료를 증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기하였으며 이 방법으로 신형 칼시움티타늄 태양에너지전지를 만들어냈다.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연구팀이 제조한 칼시움티타늄 태양에너지전지는 신기록을 세웠는데 일상의 강한 빛과 고온 환경을 모의하여 3,670 시간 (약 153 일) 동안 지속적으로 작동한 후에도 여전히 97%의 발전 효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동종 태양에너지전지중 가장 길고

안정적인 작동 시간으로 되며 실제 응용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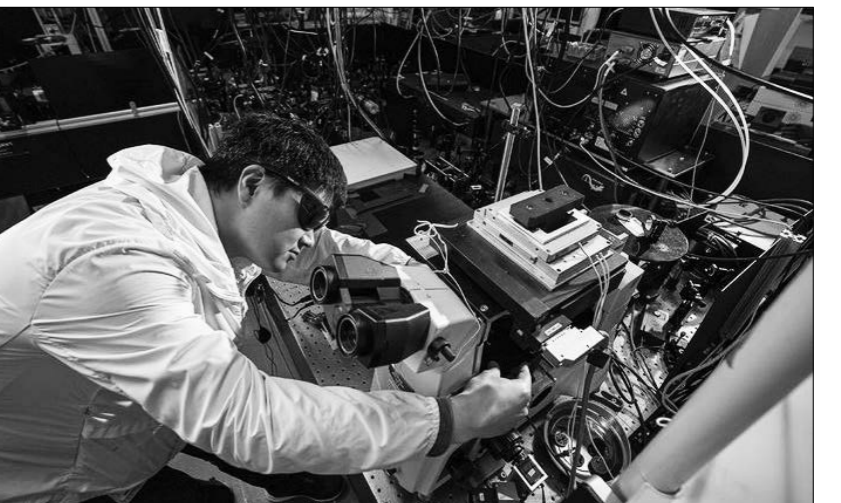
연구에 따르면 칼시움티타늄광재료는 햇빛에 비추면 풍선처럼 반복적으로 팽창하고 수축되며 시간이 지나면 마치 접힌 종이처럼 최종적으로 찢어지는 것처럼 파열된다. 연구원들은 재료에 '방호복'을 입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소재중 하나인 그래핀에 특수 투명 플라스틱을 더해 마이크로미터의 1만분의 1에 불과한 초박형 보호층을 만들었다. 여러차례의 시도를 거쳐 연구팀은 일종의 방법을 통해 단일층 전체 그래핀을 칼시움티타늄광박막 표면에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험에서 이런 이중구조로 형성된 '방호복'은 재료의 압력저항 능력을 두배로 증가시켜 팽창폭을 0.31%에서 0.08%로 낮출 수 있었다.

지난 10년간 전세계 과학자들은 주로 재료 배합의 개량으로부터 착수하였는데 화동리공대학 연구팀은 처음으로 '물리손상'이라는 이 숨은 '킬러'를 발견하여 후속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열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 작업이 칼시움티타늄 태양에너지전지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 경로를 재정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기술은 이미 기업과 합작 실험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량산에 들어가게 되면 건물 외벽에 태양에너지 발전이 가능한 유리를 안정하고 야외에서 접을 수 있는 충전담을 생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보호막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 료해에 따르면 칼시움티타늄 태양에너지전지의 생산원가는 규소전지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발전 효율도 아직 제고될 여지가 있다.

/ 과기넷



미국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 콜롬비아대학, 예스빠나 마드리드자치대학 공동연구팀은 《네이처·광학》저널에 그들의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광자 눈사태' 나미립자를 리움하여 새로운 광학 계산 재료를 개발, 이 발견은 나노급 광학 메모리와 트랜지스터를 제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동시에 차세대 컴퓨터의 더 작고 빠른 구성 요소를 실현하는 데 새로운 경로를 제공했다.

/ 과기넷